

중국 난개발로 '쫓겨나는' 티베트인

광산 개발과 댐 공사 등 티베트 고원지대 '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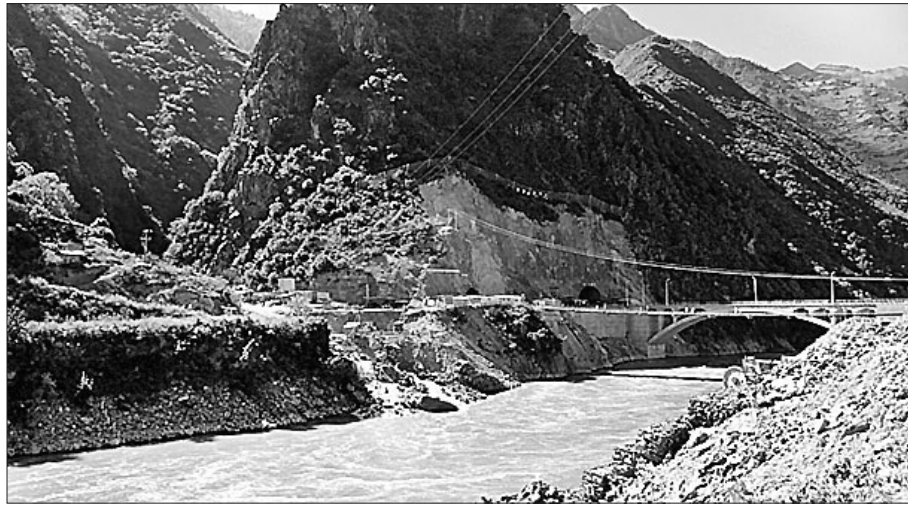
중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티베트의 산업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Free Press'는 마이클 버클리(Michael Buckley · 캐나다)의 <Melt down in Tibet(녹아내리는 티베트, Macmillan 퍼넬)>에 주목, "티베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산업화 정책이 티베트 특히 고원지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는 동남아시아와 인도 대륙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1월 발간된 <Melt down in Tibet>은 중국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티베트의 산업화의 병폐를 고발하며, 티베트에 대한 지구촌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이다. 'Free Press'는 이 책을 인용 "티베트 산업화의 정점은 중국 주도의 광산 개발과 댐 건설"이라고 주목했다.

중국을 등에 업은 광산 개발업자와 댐 건설업자들은 티베트 농부들의 터전을 파괴하고 유목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있다. 대규모 개발과 공사로 넘쳐나는 쓰레기들은 강으로 유입되며 물을 오염시키고 때때로 태워 버리기도 해 공기도 오염시키고 있다.

티베트 수도 라싸 인근 훈둔(Lhundrub) 지역에 살고 있는 한 광산 노동자는 "수질과 대기 오염으로 인해 인근 지역의 풀이 자라지 않아 많은 동물들이 굶주려 죽고 있으며, 개발 지역으로 부터 7~8km 떨어진 땅은 메달라 곡물을 재배할 수 없다"며 "이



중국의 티베트 지역 댐 건설 현장

베스트셀러 <녹아내리는 티베트> 주목 난개발로 티베트 농부·유목민 몰아내 쓰레기 방출로 환경 오염 '극심' 중국정부 '나 몰라라' 태도 고수

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영위해 온 티베트인들이 강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의 반발에는 관심이 없다. 'Free Press'는 "현지 티베트인들은 지역 관할 당국자에게 생계의 원천인 목초지 보호를 호소하며 개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폭발음으로 인해 야생 동물들이 놀라 지역을 떠난다는 청원을 했으나 묵살됐다"며 "오히려 지역 관할 당국자들은 티베트인들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반대하는 것으로 비난하고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이클 버클리는 "중국 정부는 티베트 자치구가 매년 성장할 뿐 아니라 티베트인 삶의 질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되묻고 싶다"며 "중국 정부는 티베트 자원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반면 농사와 목축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땅은 황폐화되고 있다. 티베트 개발은 가까운 미래에 지구촌 생태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Free Press'에 따르면 마이클 버클리는 티베트 고원지대의 댐 건설은 강 하류 지역의 나라, 특히 그 나라 사람들의 물줄기를 차단해 삶의 균형이 깨질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티베트에서의 댐 건설에 주변국인 인도, 네팔 등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Melt down in Tibet>를 읽은 달라이 라마 역시 "티베트 고원지대의 심각한 환경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마이클 버클리의 지적처럼 티베트 고원지대의 난개발은 고원지대에 산재한 빙하를 녹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세계 기후변화를 가속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UN 산하 기후변화전문위원회(IPCC)의 보고서에 의하면 티베트 고원지대의 빙하는 2035년 이전에 모두 녹아서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중국 정부의 '티베트 산업화' 정책이 이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클 버클리는 "중국군은 힘으로 밀고 들어와 무자비한 개발을 진행하며 주민 행세를 하고 있다. 세계 제3극이라 불리는 티베트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파괴된다면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롭상 스님, 85명 아이들 '아버지' 되다

HBO, 8월 17일부터 인도 고아시절 스님 다큐 방영

인도 한 시골 마을에는 85명의 아이들을 보살피는 스님이 있다. 스님을 아버지처럼 따르는 85명은 대부분 부모를 잃었거나 혹은 버려진 아이들이다.

종교전문지 'RNS(Religion News Service)'는 8월 17일 'RNS'는 "보스턴에서 불교 가르침을 전파하다 오직 고아들을 위해 황폐한 시골 학교로 발걸음을 돌린 스님이 있다"면서 롱상 편속(Lobsang Phuntsok) 스님을 소개했다. 롱상 스님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곳은 인도 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Arunachal Pradesh)에 위치한 '잠세이 가살(Jhamtse Ghatsal)'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시설이다. '잠세이 가살'은 티베트로 '사랑과 연민의 정원'이라는 뜻이다.

미혼모 아래 태어나 버려져 조부모가 불교 사원에 보내 보스턴서 전법활동 중단 후 인도 건너가 고아 돌보기 시작

이곳에서 롱상 스님은 4살짜리 꼬마부터 청소년까지 85명 아이들의 아버지다. 아이들 중에는 고아도 있지만 집이 너무 가난해 부모가 키울 수 없어 보내진 아이도 있다.

롱상 스님의 아이들에 대한 남다른 애착은 이유가 있다. 스님의 어머니는 미혼모였고, 스님을 키울 수 없게 되자 쓰레기 더미에 버렸다. 이 사실을 안 조부모가 스님을 구주해 돌보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한 불교 사원으로 보내졌다. 'RNS'는 "이 때가 바로 그가 스님으로서 삶을 시작한 때"라면서 "롱상 스님은 미국에서 몇 년간 불교를 가르치는데 시간을 쏟았지만, 이후 여러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삶을 택하고 인도로 발을 옮겼다"고 설명했다.

롱상 스님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롱상 스님과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면서부터다. 미국

영화채널 'HBO'는 8월 17일부터 약 한 달간 이들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타샤와 스님(Tashi and the Monk)'을 방영하고 있다.

영화는 영국 영화감독 앤드류 힌튼(Andrew Hinton)과 독일 영화감독 조니 버크(Johnny Burke)에 의해 만들어졌다. 힌튼은 색다른 다큐멘터리 영화 소재를 찾기 위해 잠세이가살 근처 마을에 머무르던 중 롱상 스님을 만나 학교를 방문했다.

힌튼 감독은 'RNS'를 통해 "처음 방문했을 때 그곳에는 매우 묘한 기운이 있었다. 나는 내가 그곳을 다시 찾을 것을 알고 있었다"며 "내가 느낀 흥분할 수 없는 그 에너지를 청중과 공유하기 위해 이 영화를 강력히 추진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힌튼 감독은 잠세이가살을 떠난 후 18개월이 지나 버크 감독과 함께 다시 돌아왔다. 그들은 약 3주 동안 머무르며 아이들이 기도 명상 수업 중인 모습, 스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장난치는 모습 등을 카메라에 담았다.

하지만 스님이 마을의 모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RNS'는 "그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다. 많은 부모들이 롱상 스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지만 더 이상 공간이 부족할 지경"이라며 "최근 11살 남자아이의 할머니 손을 잡고 스님을 찾아왔지만 거절할 수 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롱상 스님은 "아이가 우리 시설에서 보살핌을 받을 만큼 힘든 상황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며 마음을 아파했다.

다큐멘터리 제목에 등장하는 5살 여자 아이 타샤(Tashi)는 마을 어귀에 버려진 것을 스님이 발견해 시설로 데려왔다. 타사의 엄마는 세상을 떠났고, 알콜중독자인 아빠는 타샤를 버렸다. 다큐멘터리의 주요 내용은 스님과 타사의 이야기를 다룬다.

힌튼 감독은 "불자는 아니지만 잠세이가살에서 진정한 자비와 연민을 봤다"며 "타사는 친구들과 뛰놀며 스스로 우울한 시절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중 청두 티벳불교 '상륙' 8월 10일 티벳불교 아카데미

중국이 청두에 티벳불교 아카데미를 설립한다. 'China Daily'는 8월 10일 "쓰촨성 지역 남서부에 위치한 청두에 티벳불교 아카데미 건설이 10일 시작했다"며 "1억 1,600만 위안(한화 약 214억) 예산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보도했다. 건설 자금은 쓰촨성 주 정부가 조달했으며, 7,73헥타르(약 2만 3천 평) 부지에 건설된다.

중국 공산당 보좌관 리 샤오상(Li Xiaoxiang)은 공식 보고를 통해 "쓰촨성 티벳불교아카데미는 내년 완공이 목표다. 4백 명 학생이 입학해 3~4년 과정 동안 불교 교전, 티벳 문화, IT와 정치 등 수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China Daily' 보도에 따르면 쓰촨성 지역에는 2천 1백만 티베트인이 거주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톨레도 지역 포교는 '부부 법사'에 맡겨라

일본불교계 '중심사원'서 3년간 법사 과정 마쳐 린센·카렌 와이크, "지역 주민 포교에 노력할 것"

미 오하이오 톨레도(Toledo) 시의 '중심사원(Heartland Buddhist Temple)'에서 이색적인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The Blade'는 8월 19일 "중심사원의 재적신도로 활동하던 와이크(Weik) 부부가 지도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수계를 받았고 대중들은 이를 지켜봤다"고 보도했다. 화제의 부부는 린센 와이크(Rinsen Weik)와 카렌 와이크(Karen Weik)로 중심사원 법당에서 오후 10시 30분에 시작된 수계 법회에서 지도법사 자격을 함께 수지했다.

카렌 와이크는 "13명의 선배 지도법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편과 함께 계를

받는다"는 게 무척 낮은 경험이었다"며 "남편 린센과 함께 톨레도 지역주민에게 불교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린센 와이크는 "중심사원에서 목조선 배우고 실수하며 연민과 자비를 배울 수 있었다"며 "포교 현장에서 인종, 성별, 경제적 등을 구분하는 분별심을 버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지역 불교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The Blade'에 따르면 톨레도 시의 중심사원은 목조선의 가치를 세우고 있는 일본불교계 사찰로, 3년 과정의 지도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며 지역에서 활동할 법사를 배출하고 있다. 와이크 부부는 2012년



중심사원 법당서 계를 받는 린센 와이크(Rinsen Weik)와 카렌 와이크(Karen Weik) 부부 모습

부터 이 과정에 참여해 올해 3월부터 지도법사 마스터 과정을 밟아 왔다.

이들 부부의 교육을 담당한 멜리사 모이젠(Melissa Myozen) 스님은 "중심사원은 목조선의 가르침이 통찰과 점진을 실천하는 도량"이라며 "부부가 함께 지도법사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멜리사 모이젠 스님은 "부부의 노력으로 지역에서 불교가 우뚝 서고 그 힘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롭상 편속(Lobsang Phuntsok) 스님은 인도 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에 위치한 '잠세이 가살(Jhamtse Ghatsal)'서 85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출처=RNS>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올먼 고당리 473-2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전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중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